

데스크 시국



윤영기  
교육부 부국장

광주 교육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정은 교육감이 2호 공약인 방학 중 무상 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다.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이 시기 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올 여름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방학 중 급식은 시범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의 대치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급식실에 근무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학교에 갔다. 시교육청이 최근 마련한 간담회 자리였다.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아내고 자리에 앉은 조리원은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렵다”고 운을 뗐다. 위생 때문에 급식 도중에 화장실에 갈 수 없고 나중에 가더라도 온몸과 옷이 땀이 젖어 불편하다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어낸 밥

이들이 밥하고 국 끓이고 튀김 요리하는 삶의 현장은 열과의 전장터다. 급식실 에어컨 온도를 가장 낮은 곳에 설정해도 체감온도는 37도라고 귀뻐했다. 조리원은 그림에도 “우리 동료 중에는 초등학교 학부모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밥 먹인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영양 교사는 학생들과의 일화를 들려줬다. 한 학생회 간부가 ‘급식실에서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 투표

학교 급식실의 그림자들

했는데 선생님께서 한 번 밥 달라”고 부탁을 해 왔다. “음식이 너무 많으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메뉴를 놓고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영양 교사는 “그때 영양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보람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회상했다. 무심한 줄 알았던 학생들이 영양 교사와 조리원 등의 존재와 수고를 인정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니세프(UNICEF) 등의 농산물 원조로 1953년부터 학교 무상 급식(빵)이 실시됐다. 70년 가까운 학교 급식 역사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지 못하는 한 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과 급여를 감내하는 급식실 어머니들이 지어낸 눈물 겨운 밥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다. 광주 학교에는 조리사 249명과 조리원 1237명 등 모두 1487명에 달하는 급식실 근무자들이 있다. 이들은 여름·겨울방학 3개월을 ‘보릿고개’라고 부른다. 일하는 날 만큼 급여를 받는 일할제(日酬制)가 적용돼 월 평균 185~200만 원에 달하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급식실 근무 환경은 ‘극한 직업’에 가깝다. 한국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리포트(“학교 급식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과 호흡기 건강 영향”)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학생들이 즐겨 먹는 계란말이, 스크램블, 삼겹살 등의 기름을 사용하는 재료 조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폭됐다. 일산화탄소는 최대 295ppm, 이산화탄소는 8888ppm 이상 검출됐다. 일산화탄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한 사무실 내 공기 질 관리 기준(10ppm)의 30배, 이산화탄소는 기준치(1000ppm 이하)의 아홉 배에 달했다. 날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산화탄소는 체내 산소 공급을 저해하는 화학적 질식제다. 이산화탄소도 공기 중 산소량을 떨어뜨려 질식을 유발한다. 급식실 대기질은 비상한 환

기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하지만 광주는 물론 전국에서 급식실 환기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학교는 드물다. 교육부가 급식실 공기질 등 환경 기준을 마련한 게 겨우 지난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급식실 근무자들은 늘 폐암과 호흡기 질환의 공포 속에서 일한다. 근골격계 질환도 끼고 산다. 수백 인분 밥을 짓는 대형 솥을 씻어내고 무거운 식재료를 운반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고질이다. 시교육청의 한 급식 업무 담당자는 “사실 급식실 근무는 남자들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철학자 김상봉 선생은 타인의 사정과 고통에 둔감한 우리를 일깨운다.

역할 인정하고 처우 개선해야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돌이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실현해야 할 만남의 진리를 위해서다 … 우리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의 빛을 지고 있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티 없는 행복을 짓밟고 서 있는가?”(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광주 학교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제삿살을 끄는 어머니들이 있다. 정부와 교육청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아이들에게 직접 밥을 먹일 수는 없다. 학교 급식은 돈으로 해결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급식실 어머니들의 젖은 손을 잡아 줄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야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려는 유·초등학교 돌봄교실 방학 중 전면 무상 급식도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다. /penfoot@kwangju.co.kr

은펜칼럼



이병우  
우아포인트연구소 대표

“공을 이루고 나면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노자 도덕경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노자는 왜 공수신퇴(功遂身退)를 자연의 이치라고 했을까? 고대 왕조시대에는 공을 세웠지만 물러나지 않으면 토사구팽(兔死狗烹)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공수신퇴는 겸양의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공을 세우고 직위가 높아질수록 흔드는 사람이 많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하다.

세조 때 남이는 이시에 난을 평정한 공으로 20대 중반에 판서에 등용됐다. 최연소 판서가 됐으나 이내 모함을 받아 28세에 처형됐다. 세파란 20대에 판서가 됐으니 훈구 대신들에게 어떻게 비졌을까? 시샘과 모함이 엄중하지 않았을까? 21세기에서도 경륜과 나이가

공을 이룬 후엔 왜 물러나야 한다고 했을까?

중시되는데 말이다.

그리고 개혁파와 훈구파가 싸우면 심정팔구는 훈구파가 이긴다. 개혁파는 대개는 젊고 의욕이 앞선다. 세력도 없으면서 명분만 가지고 담배다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다. 훈구파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으면 뿔뿔 뿔쳐서 반격한다. 종종 때 조광조는 개혁을 도모하다 훈구파의 반격을 받고 목각했다. 이때 나이 37세였다.

공수신퇴와 토사구팽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초삼갈’의 운명이다. 초한 쟁패전에서 유방을 도와 승리로 이끈 세 명의 인물이 장량, 소하, 한신이다. 유방 스스로 이 세 명의 도움이 있었기에 항우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유방이 천하를 쟁패한 후 세 인물은 명운을 달리했다. 장량은 많은 포상을 사양하고 직위에서도 한발 물러났다. 공수신퇴의 길을 간 것이다. 장량은 명리에 담백한 자세를 시종일관 유지했기 때문에 유방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았다. 소하는 재상직을 수행했다. 권한이 큰 만큼 전쟁 중에도 유방은 소하를 때때로 의심했다. 그럴 때마다 소하는 유방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욕심이 없음을 보여줘야 했다.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에 한신은 달랐다. 전쟁터에선 천재였지만 정치에는 백지 수준이었다. 장량처럼 명리에 담백하지도 못했고 소하처럼 정치적인 노련함도 없었다. 제나라를 평정한 후 제왕으로 봉해 달라고 요청해 유방의 노여움을 샀고 이후에도 유방에게 심히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다. 항우가 있었기에 참았던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공적이 있으니 어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토사구팽 당하고 말았다.

정치권에서 토사구팽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 정치사에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정당 대표가 평당한 사례가 있었던가?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긴 정치 입문 1년도 안돼서 대권을 휘어잡은 것도 현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선, 지선이 끝나자마자 젊은 당 대표를 향한 국민의 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치질 두고 볼 일이다.

유사 이래 기득권층은 약점을 찾아내어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도가 튼 사람들이다. 없는 죄도 만들어낼 참인 데 있는 약점을 보고 그대로 두겠는가? 공수신퇴는 이러한 인간 군상의 심리를 파악했기에 출현한 생존자가 헤게 아닐까? 비상식의 상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즘, 공수신퇴와 토사구팽의 교훈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한다.

기고

고향사랑 기부금제, 전 도민이 함께 준비하자

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2008년에 고향 납세제를 도입했다. 애초 기대와는 달리 수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 없이 지지부진했으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홍보, 지자체의 다양한 답례품 제공 등에 힘입어 2020년에는 7조 원까지 규모가 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의 긴 노력 끝에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시행한다. 주민세와 연계하여 납세를 유도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정치 기부금 형식을 빌렸다. 기부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부 지역을 선택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기부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만 원 이내의 답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 소멸 위기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 복지 사업 등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은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게 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우리 고향이 직면하고 있는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대안이 되는 것이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기본 방침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이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의 중요성과 취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기부제 등 점진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전남 지자체는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 활동과 대도시 기부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답례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부금으로 마련한 재원이 도민의 복지 향상 등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대표 농도이다. 전남의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뿔뿔 뿔쳐 고향 사랑 기부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와 시군은 고향 사랑 기부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모금 전략을 세밀하게 세우고, 지역 주민은 기부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답례품 생산자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답례품을 생산하여 기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해야 한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이다. 전남의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 가능해지고, 내 고향 전남을 지켜낼 수 있다. 반면 앞으로 다가온 고향 사랑 기부제도 시행, 이제 전 도민이 관심을 두고 함께 준비해야 할 때다.

社說

첫 정책 협의 나선 여당 ‘호남과의 약속’ 이행

국민의힘이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여당이 호남을 첫 행정지역으로 택한 것은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제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중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지역에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출출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과 3개 시도는 지역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국가 지원형 모델을 제시하며 디지털 광역통합유통센터 및 트램·도로 연결망 구축에 90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 사업화 등을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 20건의 핵심 사업을 정부 예산안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건의된 현안에 대해 예산 당국 및 대통령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트램 등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지원 건의에는 사실상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40년 이상 노후한 전남대병원에 1조 2000억 원을 들여 최첨단 의료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뉴 스마트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적극 돕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은 큰 수확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광주시·전남도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전남의 국립 의대 설립에 대해 진전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시도는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더욱 면밀히 입증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호남을 맨 먼저 찾은 국민의힘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내건 호남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한 달 대기’ 에어컨 수리 제조사 책임 다해야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기준 7월 상순 평균 최고 기온은 32.9℃로 평년(28.3℃)보다 4.6℃나 높다. 7-8월 날씨 전망 또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뿔뿔뿔’ 속에서 에어컨 가동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에어컨 고장으로 애로를 겪는 소비자가 제조사에 애프터서비스(AS)를 요청할 경우 짧게는 4-5일, 길게는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무더위를 참고 견뎌야 하는 소비자의 답답함과 불편함은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심지어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기사가 올 때 까지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올해의 경우 불발터워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6월 중순부터 에어컨 AS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6월 말부터 AS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에어컨이 고장났어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하는 이유는 제조사 AS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냉매 충전과 누설 관련 고장은 사실 업체에 맡겨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부품이 고장난 경우에는 사실 업체가 해당 부품을 구매할 수 없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브랜드 제조사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 제조사는 판매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에어컨의 AS에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부 제조사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인력을 30% 이상 늘렸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제조사들은 AS 기간 단축을 위해 추가로 현장 수리 기사를 확충하는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제조사의 브랜드 가치는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AS 과정에서 판가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토사구팽’(兔死狗烹)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동양 최고(最古)의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와 중국 고전 소설인 ‘초한지’에서 나오는 말이다.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도 필요 없게 돼 주인이 살아 먹는다는 뜻이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 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룰 때 자주 사용된다.

최근 여야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들이 ‘토사구팽’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리

의 징계 수위는 당내에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지겨울 정도로 ‘청년’을 외치고, 2030세대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하는 선거 전략을 써 왔던 정당이 선거가 끝나자 눈치 보지 않고 대표적 청년 정치인을 내치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 막판 이재명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던 민주당 박 전 위원장의 경우 본인이 ‘토사구팽’을 직접 언급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토사구팽

위원회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으며 당 대표직이 정지됐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박탈됐다. 이들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난 뒤 각당의 ‘간판’ 청년 정치인들을 토사구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SNS를 통해 ‘필요할 땐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서 이용해 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 대표의 경우 현정사 최초 30대 최연소 정당 대표로 선출되는 기록을 썼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두 선거를 연이어 승리로 만들어낸 당 대표였다는 점에서 그

도전하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토사구팽을 하는 이 정치판’이라고 비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30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을 앞세운 영향으로 다수의 청년 지방의원들이 탄생하기도 했다. 반면 선거가 모두 끝나자 거대 양당은 당의 ‘간판’ 청년 정치인들을 뺀(烹)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2030 청년들이 앞으로 기성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심판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